

## 코넬大學의 特性과 教育環境

朴 元 奎

(慶熙大 經營學科)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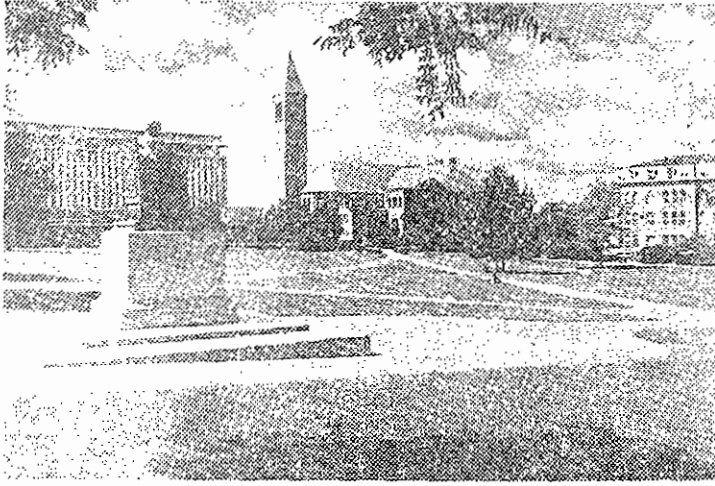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은 뉴욕주 이타카(Ithaca)市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Ivy League의 8개 私立大學 중의 하나이다. 뉴욕市에서 北西쪽으로 약 400km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타카市는 인구 약 3만 명 정도의 작은 市이며 사람의 다섯 손가락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하여 Finger Lakes라고 불리는 5개의 호수 중 길이가 가장 긴 카유가(Cayuga)湖의 남쪽 끝에 접하여 있고 빙하기에 이루어진 계곡들과 함께 호수, 계곡, 크고 작은 폭포들, 그리고 옛적에는 북쪽의 Ontario湖까지 작은 배가 연결되기도 했다는 작은 운하 등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갖고 있는 市이다. 코넬대학은 이타카市의 언덕진 곳에 시 중심부와 카유가湖를 바라 보며 위치하고 있어 그 景觀이 뛰어나게 좋으며 캠퍼스 내에도 계곡과 작은 호수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 하고 있다.

캠퍼스의 아름다움, 쾌적함과 더불어 코넬대학은 세계의 有數 대학으로 머물러 있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학 중의 하나로서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대학의 설립 배경과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 教育理念과 特徵

코넬(Ezra Cornell)과 화이트(Andrew Dickson White) 두 사람의 立志로 1865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740 에이커의 메인 캠퍼스를 갖고 있다. Ezra Cornell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대학 설립을 위해 내 놓았으며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겠다(I would found an institution where any person can find instruction in any study)”는 그의 대학 설립 이념을 표명하였다. 한편 코넬과 화이트는 단순히 학문으로 강의실 내에서만 남는 교육보다도 실제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이러한 이념들은 이 대학의 운영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다.

현재 이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과목은 4,000 과목이 넘으며 또한 미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부문에서 研究가 행해지고 있는 곳의 하나가 이 대학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연구의 결과가 실제 생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두 설립자의 이념은 한편으로 연구와 並行하여 강단에서의 傳授 또한 강조하는 것으로 이 대학은 노벨賞이나 풀리처賞을 受賞하거나 기타 뛰어난 연구 업적 賞을 받은 教授들도 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學部(undergra-



◀ Ithaca市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과 함께 캠퍼스 안에도 계곡과 작은 호수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 Cornell大學은 실제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教育을 강조하고 있다.

duate) 강의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유명한 碩學들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누구나 어떠한 것이든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의 설립’이라는 이념은 이 대학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의 경우나 대학원의 경우에도 校內의 서로 다른 대학(college) 간의 交流가 잘 이루어져 학생들은 스스로, 때로는 지도 교수와의 협의하에 다른 대학, 다른 科에서의 과목 이수가 다양하게 허용되고 있다.

폭 넓고 다양한 과목의 개설, 그에 따른 다양한 研究 및 이의 傳授를 위한 강의의 강조, 학생들의 폭 넓은 과목 선택권과 이에 따른 각 大學 및 科의 원활한 상호 교류가 우수한 教授, 우수한 施設, 우수한 學生 없이는 제 기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은 自明한 것으로서 이 대학은 聯邦정부, 州정부, 기타 大企業들과 졸업생들의 재정 협조를 받아내는 데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대학 설립시 캠퍼스의 일부가 뉴욕州에서 無償으로 拂下되었으며, 校內의 4개 대학(agriculture and life science, human ecolog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와 ve-

terinary medicine colleges)이 뉴욕 州정부의 도움을 받아 설립되었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이 같은 코넬大 안에서도 다른 대학보다 훨씬 싼 것이 특이하다.

1987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대학의 總收入을 그 財源別로 보더라도 이 대학이 私立대학이지만, 聯邦정부나 州정부로부터 상당한 財政支援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수입 중 23.9%가 聯邦정부 보조, 17.1%가 뉴욕 州정부 보조이고 학생들의 수업료가 2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研究費 획득 면에서 볼 때 미국 전체 대학 중 美 국립과학원의 研究費 보조를 가장 많이 받은 대학 중에서 3번째, 산업체로부터의 研究費 지원을 받은 순서로는 6번째, 政府의 지원을 받은 순서로는 5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政府의 지원을 이 대학이 크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대학 자체내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나(1986년 자료에 의하면, 理工科 계통의 연구비 사용으로서 코넬大는 미국 전체 대학 중 3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Ivy League 私立대학들이 가질 수도 있는 아집성을 탈피하고 이름 있는 州立大學들이 갖는 바깥 세계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된 4개의 州정부 보조를 받는

대학들이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교수들이 政府의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 대학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 대학의 개방성은 學部 학생들이 해외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다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해에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중국,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코넬大의 기본적 특징 외에 이 대학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현황을 살펴 본다. 이 대학은 11개의 colleg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과대학은 뉴욕市에 위치하고 있다. full-time 教授의 總數는 2,138명이며, 이 중에서 의대 教授는 582명이다. 教授의 94%가 박사학위 소유자로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는 모두 18,540명이며 이 중에서 의과 대학생의 수를 제외하면 17,979명이다. 이 중에서 學部 학생의 수는 12,684명이고 大學生은 5,295명이다. Ivy League 대학들 가운데서는 가장 크고 동부 지역의 주요 대학 중에서는 女學生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대학이다(1870년). 미국 내에서 대학 신문을 최초로 발행한 학교이며 국제 연구소를 가장 많이(6개) 보유하고 있다. 약 50개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아시아語인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의 1년 집중 과정을 미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개설하고 있는, 아시아圈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학교이다. 현 코넬大 教授 중 노벨賞 수상자는 3명, 풀리처賞 수상자는 5명, 기타의 賞을 수상한 教授들이 많으며 學部 신입생들의 평균 SAT 성적은 미국 전체 SAT 평균 점수보다 350점 이상 높다고 한다. 기타 여러 현황은 생략하기로 하고 유학생으로서 필자에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이 대학의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 대학의 도서관은 그 보유 藏書의 數로서는 미국 대학 중에서 10위에 속하고 5백만 권 이상의 책과 6만 종류 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만 부의 책이 추가 구입되고 있다. Olin 도서관은 주로 대학원 학생과 교

수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40만 권 이상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學部 학생들은 주로 Uris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도서관은 서로 마주보며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대학원 학생이 신청할 경우, 자기 책상을 Olin 도서관 내에 배정받고 소지품을 보관하는 보관함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아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내 생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配慮되고 있다. 이 두 개의 주 도서관 이외에도 각 대학에 소속된 도서관이 캠퍼스 내에 여러 군데 있으며 그 숫자는 13개에 이르고 있다. 각 대학의 부속 도서관은 주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전공 서적을 비치하여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중앙도서관에 없는 책은 각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로간의 연락도 원활히 되어 학생이 찾는 책이 어느 도서관에 몇 권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필자가 특히 인상에 남았던 것은 방대한 숫자의 藏書나 학생들이 체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보다도 도서관 직원들의 친절과 학생들이 구하고자 하는 책을 끝까지 찾아 주려는 노력이었다. 한번은 이 대학에 없는 책을 구하려고 신청해 두었는데 한 열흘 뒤에 그 책이 미국 내에 두 개의 도서관에 있는데 한 권은 이 대학과 도서 교환 협정이 안 되어 있어 구할 수 없고, 다른 한 권은 聯邦정부 部署 내의 한 도서관에 있는데 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수일 안에 입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뒤 그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었으며 필자는 그러한 도서관 사람들의 성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3. 理工大學

필자는 理工계통의 學科에 대해서는 술적이 별로 아는 바가 없어 이 대학의 理工계통의 學科에서 학위를 마친 몇몇 동창들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科가 미국 대학 중에서 상위 몇 위에 속한다는 이야기와 우수한 연구 설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biotechnology, microelectronics, computer science, material science, ceramics, biochemistry 등

이 좋다는 이야기라든가 화학과, 물리학과, 전기학과, 전자학과, 천문학과, 기계학과, 항공학과, 화공학과 등 한국에서 필자가 學窓 시절 그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그나마 대강 무엇을 하는 학인가 알 듯 하기도 한 학들도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대학의 노벨賞을 받은 교수 3명이 물리학과와 화학과의 교수들이다. 앞서 언급한 이 대학이 誘致하고 있는 6개의 국책 연구소에는 CHES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center for high energy synchrotron studies) 여기에는 synchrotron이라는 전자 가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힘이 강한 세계적으로도 몇 대 안 되는 설비로서 생물, 화학, 물리, 재료공학 등 기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 週期的인 기여를 하는 장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공대에서 이터한 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중이라 한다. 한편 일명 Theory Center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국책 연구소는 미국 내에 5군데 밖에 없는 국가 지정 슈퍼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슈퍼 컴퓨터도 IBM의 지원하에 최근·최신의 것으로 대체하여 수 많은 영역에서 研究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코넬大의 理工大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는 ECP(engineering cooperative program)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4년 學部 기간 동안 적정 산업계에 고용되어 작업 현장에서의 기술 및 지식의 研磨와 학교에서의 지식 습득을 연결하면서 봉급을 받으며 學位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産學 협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실제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碩士學位까지로도 연결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碩士學位는 理工 계통의 학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문 계통의 어떤 가능한 학위도 취득할 수 있도록 대학 상호간의 협력 체계가 짜여 있어 이 제도는 코넬大의 교육 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 내의 상호 노력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 4. 農科大學

農大는 學部학생의 수로 볼 때 이 대학 안에서 두번째로 큰 대학이며 미국 내에서는 세번째로 큰 農科대학이다. Ivy League 대학 중에서는 코넬大가 유일하게 農科대학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農科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타카에서 50km 떨어진 Geneva市에 별도의 시험장 및 연구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으며 뉴욕州 내에 14,000 에이커에 달하는 시험장에서 정부의 국책 연구 과제 등 각종 시험을 행하며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microbiology, environmental science, food science, agricultural engineering, agricultural economics 등등 폭 넓은 학문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 5. 經營大學院

필자가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학원이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대학원을 운영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학원은 Business week紙가 최근 미국 내에서 개년제로 좋은 Business School로 평가한 바 있으며, 미국 某기업으로부터 2,000 만 불의 재정 지원과 기타 여러 기업들로부터의 많은 재정 지원을 프로그램의 확대와 그 內質을 기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989년 자료에 의하면, 신입생은 246명, full-time 교수 42명, part-time 교수 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내의 Business School의 크기로 볼 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大學院의 특징을 살펴 보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이나 학위 취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 과목 이외의 (필수 과목 중의 일부도 시험을 거쳐 통과하면 수강이 면제된다) 선택 과목은 코넬大 내의 어느 대학원에서도 학생이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碩士(M.B.A.)의 취득과 동시에 다른 대학원의 학위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법대의 J.D. 학위와 M.B.A. 학

위를 각각 따로 취득하는데 필수 기간으로 5년 이 소요되지만, 이것을 4년으로 가능하게 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 대학원 내의 PIMM(program in manufacturing management)에 등록하던 工學碩士(M. Eng)와 M.B.A.를 동시에 취득 가능하게 해놓은 것들이다. 기타 여러 석사학위의 동시 취득이 가능하게 해놓고 그 기간도 보통 M.B.A.를 취득하는 데 드는 필수 기간 2년보다 한 학기 정도만 연장시켜 요구하고 있어 능력 있는 학생들이 경영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식을 단시일 내에 습득하도록 유도하거나 경영학 이외의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사회적 실무물 쌓아온 학생들이 그 분야에서의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M.B.A. 취득이 가능하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London Business School이나 벨지움의 루벤대학, 프랑스의 경영 전문 기관과의 교환 학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아직은 모든 학생에게 폭 넓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의 국제적 경영 안목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 최근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본의 경영 기법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在學中 일본어 집중 훈련 과정에 등록과 함께 여름 방학 중에는 일본으로의 현지 고용 훈련(internship)도 가능하게 해 놓고 있다. 또한 실업계의 인사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이나 경영 기법을 듣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으며, 졸업생들에게도 최근의 새로운 경영 시작 및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무료로 매년 주고 있다.

경영대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대학에서 제공되는 4,000개 이상의 과목 중 어느 것에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성과 학생들에게 국제적 경영 감각과 現場의 경영 감각을 높여려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코넬대의 특징이나 그 교육 이념을 잘 보여주며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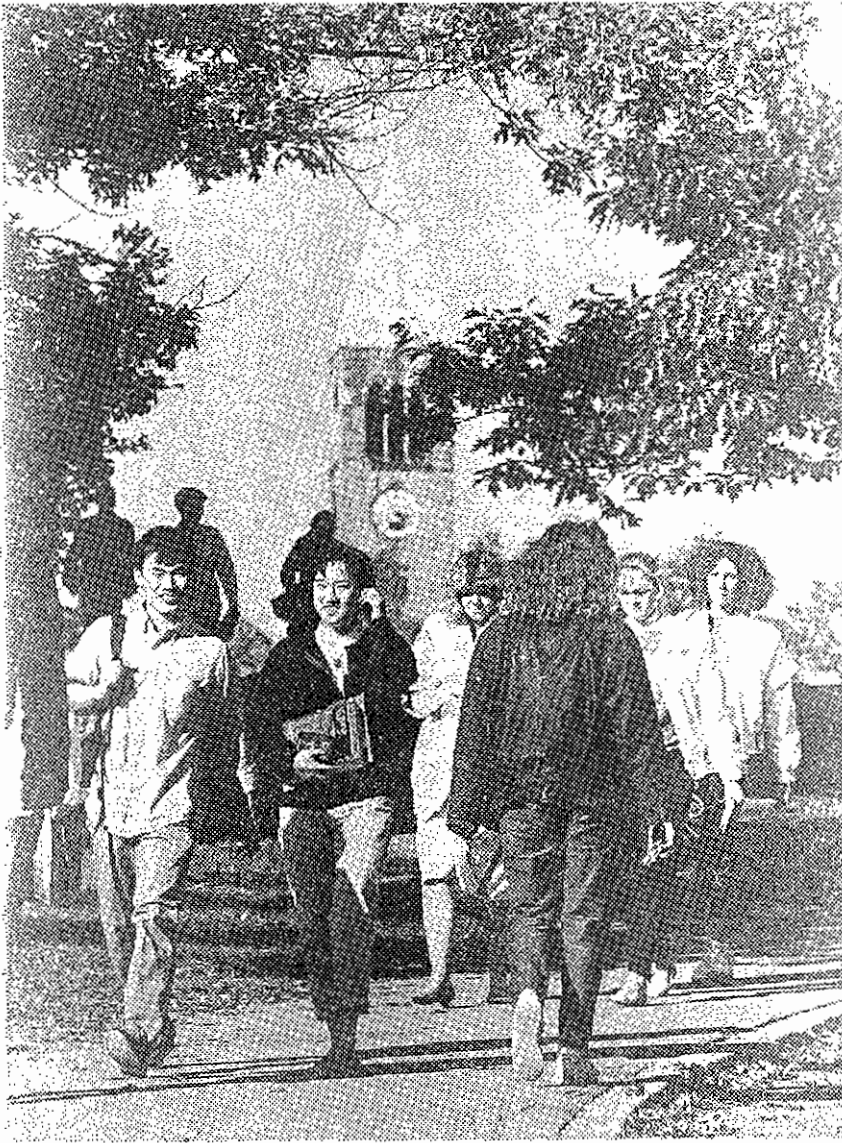
## 6. 기타의 特徵的 大學 및 學科

코넬대의 특징적 프로그램을 부각하려고 일부

대학과 대학원을 부각시켜 설명을 달았으나, 미처 언급되지 못한 다른 대학이나 학과(또는 프로그램)들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대학은 1944년 뉴욕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勞使 관계, 노동 역사, 노동 경제, 노동법 등 勞使 간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研究를 위해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勞使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나 실무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산업 및 노동 관계 연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school of hotel administration 대학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폭 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호텔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곳의 도서관에서 호텔 관련 서적의 방대함에 놀란 기억이 있다. 학생들은 이 대학 건물 안에 꾸며 놓은 실제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음식도 만드는 등 호텔의 실제 경영에 관한 실습을 한다. 이 대학의 식당 음식은 다른 校內 식당보다 비슷한 값에 맛이 더 좋아 식사 시간 때에는 늘 사람들로 붐비곤 했다. 한편 코넬대의 法大(law school)는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 위한 선발 과정이 까다롭기로 이름나 있고, 獸醫大學(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도 1894년에 설립되어 동물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예방법과 처방약을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도시 및 지역 연구(urban and regional studies), 인간 개발 및 가족 연구(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영양학(nutritional science) 등도 높이 인정받고 있다.

한편, 독특한 기관으로 CIS(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가 있는데 이 기관은 이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정치, 경제, 정부 행정, 평화, 지역 개발, 여성 지위, 인구, 농업 문제 등 등 그때 그때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제들의 연구를 위해 상호간 전문 지식의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자금의 지원을 주로 대학 자체로부터 받으며, 校內의 각 국제 관련 연구소의 교류 및 그 해의 활동도 돕고 있어 학문 상호간의 교류를 중시하는 이 대학의 특징



◀ 동부 지역의 주요 대학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인 Cornell大學은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의 1년 집중 과정을 미국 대학 중에 유일하게 開設하고 있어 아시아 圈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大學이기도 하다.

을 잘 보여주고 있다.

## 7. 맺음말

이상으로 필자 나름대로 코넬大學을 특징적으로 소개해 보았으나, 紙面의 제약도 있고 그보다도 필자의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소개되어야 할 사항들이 빠지거나 가볍게 지나치게 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서는 코넬대학 당국이나 코넬대학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랄 뿐이다.

뉴욕시에서 나이가가라 폭포까지를 자동차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코넬대학을 잠시 구경하고 가는 것도 큰 후회가 없는 여행이 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참고 자료와 캠퍼스가 담긴 사진을 보내 주신 교수님과 Albert E. Kaff 씨의 협조에 謝意를 보낸다. \*